

정보통신일지

기술연구소 총람 발간(11월 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87년판 한국기술연구소 총람을 발간. 이 총람은 3백31개의 기업부설연구소, 13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14개의 국공연구기관, 9개의 법인연구기관 및 6백여개의 세계 주요 연구소를 수록했다.

컬러잉크 제트 프린터 시판(11월 23일)

삼성휴렛팩커드의 이 프린터는 분말상태의 잉크를 혼합 분사해 인쇄하므로 3백여 가지의 색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초당 1백67자를 인쇄할 수 있다.

올림픽중계 전용시스템 구축(11월 24일)

미 NBC 방송국은 대우통신의 SL-1 사설구내 교환기를 이용해 방송중계 센터인 IBC와 잠실주경기장을 비롯 올림픽공원, 올림픽기자촌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올림픽 방송중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워드프로세서 구매입찰방법 변경(11월 24일)

한국데이터통신은 업체간의 말썽을 빚고있는 워드프로세서 구매를 1차로 납품키로 돼 있는 금성소프트웨어사 제품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면, 업체별로 분담해 구매키로 했다.

한국형 PC용 OS중점 개발(11월 25일)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이사장 具滋斗)은 내년부터 90년까지 정부출연금 2억8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2억 6천만원을 투입, 전자출판 시스템을 개발하고 22억 8천만원(정부 출연금 6억6천만원)을 들여 한국형 PC용 OS를 개발키로 했다.

에니메이션 SW 공급(11월 25일)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全相昊)이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미 레취(LECHT)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메뉴가 모두 그림으로 표시돼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기능이 다양하다. 또 카메라, 프린터, 비데오서트 등 여러 주변기와 연결, 입출력 방식을 다양화 했다.

PABX 신호 표준화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네트워크 표준화의 일환으로 사내 구내교환기와 일반전화 교환망간의 신호인터페이스를 표준화 했다.

통신공사 89년 상반기까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11월 26일)

체신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주 개발보급과 관련,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오는 89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공사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89년 하반기부터 92년까지 주식의 49%를 연차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또한 내년중에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 기타 전기통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3.5인치 HDD 수출(11월 26일)

동양정밀(대표 權赫祚)은 미 카룩스사와 3.5인치 HDD를 1년간 5천만 달러어치 수출키로 계약했다. 이번 수출하는 3.5인치 HDD는 기존의 5.25인치 HDD보다 크기는 작으면서도 기억용량은 크고 처리속도는 빠르다.

농산물건조 컴퓨터자동제어시스템 개발(11월 26일)

키컴소프트월드(대표 金基福)가 개발된 이 시스템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 잎담배, 고추, 인삼 등 농작물의 건조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자동조절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온·습도는 물론 풍량조절을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여 최적의 건조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품질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

전화서비스 질적 고도화 적극 추진(11월 26일)

체신부는 통신시설의 양적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질적 고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부터 국제간 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 추진 및 91년까지는 영상전화, 비디오텍스, 선박자동화 등을 개발, 서비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새로 추가할 서비스는 변경된 전화번호를 자동안내해주는 것을 비롯 착신가입자 과금서비스, 주파수 공용 통신방식 서비스, 국제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및 전화망을 통해 수도검침, 전기검침을 할 수 있는 텔리미터링 제도도 도입키로 하고 현재 시험중이다.

거울사인 영상기 나와(11월 26일)

미래전자(대표 沈載訓)는 평소 거울상태로 있다가 사

람이 접근하면 다양한 영상을 나타내는 최신 거울사인 영상시스템을 개발했다.

지적소유권 개방과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 발간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품 모조방지위원회는 “지적소유권 개방과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선진국의 통상정책, 물질특허 도입에 따른 기업경영전략, 첨단산업의 지적소유권 보호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등이 수록돼 있다.

S/W 산업발전방향 보고서 발간(11월 26일)

한국정보과학회(이하 정보과학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S/W 산업 육성 정책, 우리나라 S/W 산업의 당면과제, 컴퓨터 전문요원 양성의 실체와 문제점 등이 수록됐다.

대덕연구단지내 MAN 구축(11월 26일)

정부는 각종연구기관 및 단체가 밀집된 대덕연구단지에 연구개발용 지역통합정보망인 MAN 제1호를 건설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대와 표준연구소등 3개 기관을 연결한 파일럿시스템을 시험운용키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밝혔다.

금성사, 서독 현지공장 준공(11월 26일)

금성사는 서독 라인란트 팔츠루 프랑크프르트 근교의 보름스시에 있는 현지공장에서 안광구 상공부전자전기공업국장, 신정섭 주서독 한국대사, 최근선 금성사 사장, 포겔 주지사 등 관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금성사의 단독출자 2백 60만 달러와 현지 금융조달 등 모두 2천 8백만 달러가 투자돼 1단계로 연산 VRT 30만대, 컬러TV 20만대의 설비능력을 갖추고 있고, 오는 90년대에는 각각 10만대씩 늘어난 40만대와 30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금성, 무선전화기 시장 본격 참여(11월 27일)

금성통신은 15개 채널의 패션 무선전화기를 개발, 시판에 나서 지금까지 취약했던 무코드전화기 시장의 세어확대에 주력. 이 제품은 내선전화기 상태 표시 자동대기전환, 송환차단 등의 다기능을 갖고 있다.

영상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11월 27일)

왕컴퓨터코리아(대표 趙璇衡)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기존 마이크로필름 시스템과는 달리 자료색인처리 및 테

이터처리 통신기능이 영상처리 기능과 통합, 문서 및 영상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한글 컴퓨터 언어 「늘봄」 개발(11월 28일)

우리말과 글(어순)을 사용,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무기화학 재료연구소 변종홍박사팀에 의해 개발된 한글컴퓨터언어 “늘봄”은 베이직등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들이 영어권에 적합한 어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말 어순에 맞는 컴퓨터언어 구조를 실현시킨 것이다.

한글언어 자동판독시스템 개발(11월 28일)

인하대 전산학과 이근하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 한글을 그림형태로 입력시키더라도 컴퓨터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인식용 소프트웨어 ADRPG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시스템의 인식율은 활자 99%, 손으로 쓴경우 60~70%이며 인식속도는 1분에 80자 정도이다.

광섬유 결합기 개발(11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 응용연구소 최상삼박사팀은 광섬유를 이용한 근거리통신망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제어장치 및 CATV 시스템에 사용되는 필수부품인 광섬유결합기를 개발했다.

1메가 D램양산, 수출(12월 2일)

삼성반도체통신은 국내 최초로 1메가 D램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이 제품의 첫 해외출하를 시작했다. 이 1메가 D램은 칩1개에 2백20만개의 소자를 집적시킨 것으로 신문 8페이지에 해당하는 13만자를 기억시킬수 있어 컴퓨터 기억장치의 소형화 및 대용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산품 화상정보 제공(12월 3일)

체신부는 한국데이터통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비디오텍스 「천리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특산품 우편판매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데이터통신은 현재 우편판매되고 있는 경기 가평의 잣, 경남 거창의 꽃감차, 전남 완도의 마른멸치등 52종의 특산품에 관한 화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기로 했다.

통화후 요금지불 새 공중전화 공급(12월 3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88년부터 공중전화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요금표시형 공중전화

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전화기는 동화한 만큼의 요금 이 전화기에 표시돼 통화자는 통화가 끝난 다음 그 표시 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정보전송장비 PAD 국산화(12월 7일)

각종 데이터를 일정량씩 묶어 전송할 수 있는 전송장비인 PAD(Packet Assembler Disassembler)가 KDC상사에 의해 국산화 됐다. 이 PAD는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 위원회)에서 권고한 X.25라는 규범(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통신 단말기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패킷 교환기에 축적한후 고속으로 전송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VAN(부가가치통신망)용 사설 교환망 등에도 응용이 가능한 장비이다.

신문 CTS 국내 첫 개발(12월 8일)

현대전자(대표 鄭夢憲)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문 출판제작 전산화 CTS 사업에 진출, 12월에 소조용 시스템을 발표하고 88년 상반기엔 신문전지용의 대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전자는 일본 NEC사의 벡터 프로세싱 신기술을 이용, 선 마이크로 시스템과 슈퍼16(IBM PC 호환기종)등 자사 제품을 중심으로 신문 출판 제작 시스템의 개발 노력을 기울여 CTS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게 됐다.

FDD 스핀들모터 개발(12월 8일)

금성정밀(대표 金榮浩)이 개발한 스핀들모터(모델명 GFS-50)는 FDD의 디스크를 회전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완전무조정 방식의 서보회로를 채택,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FDD의 신뢰성 및 호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여행정보 업무개시(12월 9일)

국내 첫 VAN 사업체로 구급 9일 설치된 한국여행정보가 여의도 동화빌딩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국내외항공사 및 여행사의 대리점등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이망을 통해 항공권발매, 국내관광예약, 여행사업무선전화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자체확보한 전산망을 호텔, 여객선회사등 여행관련업체의 전산시스템과 접속시켜 항공승객은 물론 기타 여행자에게도 여행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터미널 개발(12월 9일)

현대전자는 워드프로세서, 텔리텍스, 텔렉스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다목적의 사무자동화 기기인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터미널을 개발했다. 또 IBM 퍼스널 컴퓨터에 옵션슬롯을 삽입, 텔리텍스 및 텔렉스 통신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카드식 텔리텍스보드와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휴대용 문서작성기 르모II 개발(12월 9일)

대우전자가 개발한 이 사무자동화 기기는 문서표시의 액정화면을 넓히고 문자판과 기억장치를 한데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또 6개국어를 자판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문서의 작성, 교정, 편집, 인쇄, 보관이 가능하다.

특허정보 서비스시스템 구축(12월 9일)

남계영 법률사무소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 15개국의 특허정보를 컴퓨터 온라인망으로 국내에서 신속하게 조사,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사무소는 최근 일본의 특허정보회사인 테스코사와 합작으로 유니온 테스코 특허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는 한편 앞으로 이를 법인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編輯後記

創刊호를 내고 곧장 해가 바뀐다. 다시 첫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戊辰年의 첫호를 낸다. 창간호의 구석구석에서 눈에 띈던 「부끄러움」을 털어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불만은 그대로 남는다.

×

×

「정보화 사회」는 情報通信産業의 「흐름」을 전달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게될 것이다. 창간호가 배포된후 많은 讀者들로부터 격려와 함께 그와같은 要望을 전해 받았다. 산업의 흐름에 시선을 모으고 그 方向을 예견하고 추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 독자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